

# 결심 안 선 이종걸...더민주 당권 다시 3파전?

### 김종인 등 주변 만류에 “28일까지 입장 정리”

### 예비경선 실시 여부 불투명...레이스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경선구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당권 레이스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예초 27일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려 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입장발표를 보류하는 등 후보등록 첫날에도 경선구도가 3파전이 될지 4파전이 될지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4파전이 될 경우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을 치러야 하지만 이 의원의 입장 보류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내 말을 들으라”라며 강하게 얘기했고, 이 의원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일단 이날 예정된 출마 기자회견을 미루고 막판 장고에 들어갔다. 그는 김 대표와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아니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이니 오늘 내일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여러 가지 좀 판단해봐야 할 부분들을 보겠

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주변 비주류 인사들의 반대 영향이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출마하더라도 이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주류 일부 인사들은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오히려 친문 진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의원의 출마 보류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주변 비주류 인사들의 반대 영향이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출마하더라도 이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주류 일부 인사들은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오히려 친문 진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의원의 출마 보류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마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 측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마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 측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공개 면담에서 강력하게 출마를 만류하자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며 다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김 대표와 면담을 하고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사표’를 반려하며 전대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라. 지금 나가서 승산이 있겠는가”라며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그래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만 전대가 치러지면 권공교체에 도움이 되겠는가”며 “나름대로 균형있게 가야 한다. 성패를 떠나서라도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출마 취지를 설명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마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 측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마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 측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출마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예측이 나돌았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 측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이정현(왼쪽부터), 정병국, 한선교, 김용태 의원이 27일 서울 중로구 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野 “추경안 누리과정 해법 있어야 심사”

### 與 “다음달 반드시 처리” 재촉...시작전부터 격돌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기 전부터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두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12일 본회의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여야 3당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도 걸리는데 다음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며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향이 치는 데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 명확하다”면서 “일단 국회로 들어왔으니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경안 심사 전략을 논의하는 ‘추경안 평가 간담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근본 해결방법을 가져와야 하고,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여야 3당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도 걸리는데 다음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며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향이 치는 데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 서청원 친박 만찬 회동에 우려의 시선

### 김희옥 “특정 계파 치우쳐”...김문수·홍문종 與 당권 불출마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계파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주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서 의원은 최근 소속 의원 절반에 가까운 50여명에게 만찬 초청장을 보냈다. 초청 대상은 서 의원의 전대 출마를 요청했던 의원들로, 대부분 친박계로 분류된다. 초청 대상에는 정갑윤·최경환·홍문종·조원진·이장우 등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김용태·이정현 등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자들은 배제됐다. 서 의원 측은 이들의 간곡한 출마 요청에 감사하는 뜻과 요청에 응하지 못한 데 사과하는 의미를 담아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회동

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찬이 특정 계파의 모임 성격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날 회동을 ‘계파 모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9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검토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친박계 4선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전 지사와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누리당 당권 경쟁은 일단 비박(비박근혜)계 정병국·주호영·김용태 의원과 중립 성향의 이주영·한선교 의원, 주류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정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민의당·정의당 “더민주 사드 대처 확실한 입장 밝혀라”

### 야권 공동 간담회...“초당적 연석회의 만들어 공론장 만들자”

야권이 27일 공동 주최한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공동 전선’을 주도하기보다 당론조차 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더민주는 당론 없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를 매개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더민주의 어정쩡한 입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강연자로 초청된 이종석 참여정부 당시 전 통일부장관부터 더민주를 향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더민주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당 유성열 의원은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비교했으며, 정의당 김중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정부 말고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으니 응답해줘야 하는데 제1야당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은 “지도부가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는 데 대해 저도 대단히 불만스럽다”며 “지도부

더민주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당 유성열 의원은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비교했으며, 정의당 김중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정부 말고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으니 응답해줘야 하는데 제1야당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은 “지도부가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는 데 대해 저도 대단히 불만스럽다”며 “지도부

더민주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당 유성열 의원은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비교했으며, 정의당 김중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정부 말고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으니 응답해줘야 하는데 제1야당의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은 “지도부가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는 데 대해 저도 대단히 불만스럽다”며 “지도부

# 여야 의원들 ‘섬 발전 연구회’ 출범

섬 발전을 연구하는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가 27일 출범했다.

국회 도서발전연구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서발전연구회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이근현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10인의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최초의 섬 관련 모임이다.

섬 발전을 연구하는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가 27일 출범했다.

국회 도서발전연구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서발전연구회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이근현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고 10인의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최초의 섬 관련 모임이다.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b>대상자</b>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b>대출한도</b>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b>대출금리</b> : 4.7% ~ 4.9%
<b>대출기간</b>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역나눔의 동반자  
서양새마을금고와 함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